

본회 42번째 지회, 해남지회 등록

- 5월 15일 결성총회, 해남지역 양록산업 발전 결의 -



전남 해남지회가 창립, 본회 지회가 총 42개로 늘어났다.

해남지회는 지난 5월15일 해남축협에서 창립총회를 갖는 한편 지회장 및 사무장 등 지회 임원들을 각각 선임했다.

해남지회 초대 지회장으로 선임된 김남현 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아 부담감이 없지 않으나 해남지역 양록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지역 양록산업 발전은 몇몇 임원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의 뜻과 의지가 모일 때 가능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 연찬회 관계로 자리를 비운 본회 김수근 회장을 대신해 이날 창립총회 축하차 자리를 함께한 정원영 이사는 “힘을 모아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산업이나 집단에는 어떠한 지원과 혜택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전제하고 “해남지회 창립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오늘의 출발이 해남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양록산업 발전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원영이사를 비롯, 본회 성락 사무총장과 김일찬 부장이 배석했으며 창립총회 이후에는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다과회 시간을 마련, 양록산업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중앙회 건의 사항 등을 접수했다.

해남지회 임원으로는 지회장에 김남현(061-534-3741)씨가, 사무장에는 이범재(061-532-2300)씨가 각각 선임됐다. **이달의 양록**